제6강 임제臨濟

◇개요: 선사(禪師) 임제(臨濟: ?-866)는 기본적으로 불교 승려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라디칼한 스님이었지요. 불교는 집착이 모든 고통을 낳는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유명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체의 권위는 집착을 낳기 때문이지요. 해탈, 즉 고통의 부재, 혹은 자유는 이렇게 노예가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될 때에만 찾아올 수 있다고 임제는 사자후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유분방한 사유가 속시원하게 드러나는 텍스트, 『임제어록(臨濟語錄)』이 우리가 아홉 번째 주에 읽을 텍스트입니다.

◇키워드: 교종, 선종, 불립문자, 벌거벗은 신체, 무위진인

1. 임제의 삶

1. 의현(義玄, ?-866)이란 스님의 속성은 형씨(邢氏)이며 조주(曹州)의 남화(南華) 출신이다. 여러 곳의 선지식(善知識)을 참문하여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수행에 힘썼다. 황벽산(黃檗山)에서 희운(希運, 847-859) 선사를 직접 보고 불법의 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안목을 깨닫는 인연을 만나게 되어 불법의 진실을 분명하게 체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쪽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부주(府主)인 조인(趙人: 王敬初 혹은 王紹懿)의 간청으로 자성(子城)의 남쪽 임제원(臨濟院)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는 경론(經論)으로 불법을 주장하는 무리들의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였고, 승도들을 모두 선당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의 핵심을 제시하여 깨닫도록 하였는데, 그가 교화하는 방법은 덕산(德山) 선감(宣鑑) 선사의 방법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감통(感通) 7년(866년) 4월 10일 입적하였다.『송고승전(宋高僧傳)』「당진정부임제원의현전(唐眞定府臨濟院義玄傳)」

2. 나의 경우 과거 일찍이 계율공부[毘尼; vinaya, 律]에 뜻을 둔 적이 있었고, 또한 경론(經論)을 연구했던 적도 있었다. 나중에 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이자 겉으로 드러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침내 한 순간에 이것들을 내던져버렸다. 나는 곧바로 도(道)를 구하려 참선을 하다가 위대한 선지식(善知識)과 마주치게 되었고 비로소 도안(道眼)이 밝아지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천하의 노화상들을 간파하여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도안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몸소 갈고 닦다가 하루아침에 스스로 성찰한 것이다.『임제어록(臨濟語錄)』13:16

3. 어떤 스님이 물었다. "선사께서는 누구의 노래를 부르며 종풍(宗風)은 누구를 계승한 것입니까?" 임제 선사가 대답했다. "내가 황벽 스님과 있을 때 세 번 질문하고 세 번 방망이로 맞았다." 그 스님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자 임제 선사는 고함을 치고서 몽둥이로 내려치며 말했다. "허공에 못을 박으려고 하지마라!"『임제어록(臨濟語錄)』1:3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임제의 깨달음●

황벽화상이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옛날 대적 문하에서 수학할 때 함께 정진하던 도반 가운데 대우(大愚)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여러 곳의 선지식을 두루 참문하여 불법의 안목이 매우 밝았다. 그는 지금 고안현(高安縣)에 계시는데, 대중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지 않고, 혼자 초암에 지내기를 좋아한다. 나와 헤어질 때 내게 간곡히 불탁하면 말했다. ‘나중에 영리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찾도록 지시해주시오.’”

임제선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곧 대우화상을 찾아가 뵙고, 황벽선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다. 그리고 밤에는 대우화상 앞에서 유가론(瑜伽論)을 이야기하고, 유식(唯識)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다시 이런저런 문제들을 질문했다. 이 때 대우화상은 밤새도록 초연히 앉아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니 아침이 되자 임제에게 말했다. “홀로 초암에 살고 있는 노승이 그대가 먼 길 온 것을 생각해서 하룻밤 묵어가도록 했는데, 그대는 어젯밤에 어째서 내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방귀를 뀌어댔는가?” 말을 마치자 몇 차례 주장자를 들어 때리고는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임제는 황벽화상에게 되돌아와서 앞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황벽화상은 듣고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다. “작가(作家)는 마치 이글거리는 불더미같이 너를 만난 것을 기뻐했거늘, 너는 어째서 헛되이 갔다 왔느냐?”

임제가 다시 대우화상을 찾아가 뵈니, 대우는 말했다. “엊그제는 부끄러움도 모르더니 어찌 다시 찾아왔는가?” 말을 마치자 곧 방망이로 때리고 문 밖으로 밀어냈다. 임제는 다시 황벽에게 되돌아와서 말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왔으나 헛되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황벽화상이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 임제가 대답했다. “한 방망이에 부처의 경지를 깨달았습니다. 설사 백겁 동안 뼈를 갈고 몸이 부수어지도록 수미산을 머리에 이고 끝없이 돈다고 이 깊은 은혜를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황벽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는 우선 쉬고 다시 갖다오도록 하라!”

임제는 한 열흘 가량 쉬고는 다시 대우화상을 찾아가니 대우화상은 임제를 보자마자 또 방망이를 들고 때리려고 했다. 임제는 재빨리 방망이를 빼앗고 대우화상을 껴 않은 채 쓰러졌다. 그리고 대우화상의 잔등에다 두어 주먹 쥐어박으니 대우화상이 연이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내가 초암에 살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 아들을 얻었구나!”『조당집(祖堂集)』「임제화상전(臨濟和尙傳)」

2.『임제어록』훔쳐보기

1. 임제선사가 법당에 올라 말했다. “‘벌거벗은 신체(赤肉團)’에 하나의 ‘무위진인(無位眞人)’이 있어서 항상 그대들의 얼굴에 출입하고 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듭 살펴보아라.”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무엇이 ‘무위진인’입니까?” 임제선사가 법당 아래로 내려와 그 스님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말해보라! 말해보라!” 그 스님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자 임제선사는 그를 밀치며 말했다. “무위지인, 이것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냐?” 그러고는 임제선사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임제어록(臨濟語錄)』3

2. 불교의 가르침에는 특별히 공부할 곳이 없으니, 다만 평상시 일 없이 똥을 누고 소변을 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피고하면 누워서 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옛 사람은 “외부로 치달아서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멍청한 놈들이다”라고 하였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된다면 자신이 있는 그 곳이 모두 참되어(隨處作主, 立處皆眞), 외부대상도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과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의 나쁜 습관과 다섯 가지 커다란 범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해탈의 커다란 바다가 될 것이다.『임제어록(臨濟語錄)』12:1

3. 배우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언어에 집착하여 보통 사람이니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속박되어 깨달음의 안목을 막고 있어서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처의 모든 경전도 표현된 설명에 불과한 것인데, 배우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된 언어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언어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과의 세계에 떨어져 삼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삶과 죽음에서 가고 오는 것을 옷 벗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형상도 없고 근본도 없으며 머무르는 것도 없이 활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임제어록(臨濟語錄)』12:8

4. 여러분! 그대들이 불법에 부합되는 견해를 얻으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안이건 밖이건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죽여 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임제어록(臨濟語錄)』13:17

5. 여러분! 그대들 눈 앞에 작용하는 것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단지 이것을 믿지 않기에 밖에서 구하려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밖에도 불법은 없고, 또한 안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대들이 나의 말에 집착하는 것보다 쉬면서 일 없이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미 일어난 생각은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그대들이 10년 동안 행각(行脚)하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불법에는 복잡한 것이 없다. 단지 평상시에 옷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여러 지방에서 찾아온 그대들은 부처를 구하고 불법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여 삼계를 벗어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대들은 삼계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 그대들은 삼계를 알고 싶은가? 삼계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대들이 일념으로 탐하는 마음이 욕계이고, 그대들이 일념으로 성내는 마음이 색계이며, 그대들이 일념으로 어리석은 것이 무색계이다. 이것들은 모두 집안의 가구들과 같은 것이다. 삼계가 스스로 “나는 삼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 눈 앞에 밝게 모든 것을 비추고 세계를 헤아리고 있는 그대들이 삼계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임제어록(臨濟語錄)』13:19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